# 아비를 부정하리라, 척불의 회오리 시작

3대 태종 헌릉(1)

3대 태종:1367~1422, 56세.
재위 17년10개월.1400.11(34세)~1418.8(52세)

**제3대 태종 가계도**

- 태조
  - 5남 → 제3대 태종 (방원, 정안대군) ● 부인 : 10명 ● 자녀 : 12남 17녀
    - 신의왕후 한씨
    - 원경왕후 민씨
      - 4남 4녀
        - 양령대군
        - 효령대군
        - 제4대 세종 (충녕대군)
        - 성녕대군
        - 정순공주
        - 경정공주
        - 정선공주
      - 효빈 김씨 — 1남 — 경녕군
      - 신빈 신씨
        - 3남 7녀
          - 함녕군
          - 온녕군
          - 근녕군
          - 정신옹주
          - 정정옹주
          - 숙정옹주
          - 소신옹주
          - 숙녕옹주
          - 숙경옹주
          - 숙근옹주
      - 선빈 안씨
        - 1남 2녀
          - 의녕군
          - 소숙옹주
          - 경신옹주
      - 의빈 권씨 — 1녀 — 정혜옹주
      - 소빈 노씨 — 1녀 — 숙혜옹주
      - 숙의 최씨 — 1남 — 희령군
      - 덕숙옹주 이씨
        - 후령군
        - 숙순옹주
      - 고씨 — 1남 — 혜령군
      - 김씨 — 1녀 — 숙안옹주

태종은 대권 재수생 출신이다. 등극 후에도 합격의 영광을 맘껏 누리지 못했다. 두 차례 왕자의 난을 치루고 피방석을 깔고 권좌에 올랐다. 왕이 된 이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방원이 이노옴!'이다. 태종3년(1402)에 일어난 조사의(趙思義)의 난은 아버지 태조가 배후 조종자다. 이성계의 복위를 도모한 반란이다. 태종은 결심한다. 최소한의 도리를 제외하고 아버지를 부정하리라. 마음은 이미 아비를 버렸다.

아비가 귀히 여기는 것이라면 작심하고 능멸하기로 작정했다. 불교를 탄압, 말살하기로 작심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숭유억불은 조선의 건국이념이 아니다. 태조는 독실한 불자다. 2대 정종도 마찬가지다.

부자간의 반목을 오디푸스 콤플렉스, 거세 콤플렉스로 설명하기도 한다. 거기에 절대 권력이 개입되어 있으면 반목은 활화산이다.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의 부패와 패망이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 전반에 유포된 불교적 요소를 걷어내야 조선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리학의 토대가 된 공자의 학문은 현실적이다. 불교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개국 초 정도전 등이 척불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태조의 의지가 굳어 강하게 실현되지 못했다. 태종의 세상이 되자 척불은 기름 부은 들불이 된다. 1400년 11월,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궁중의 인왕상을 대궐 밖으로 옮겨버린다. 인왕상은 환관 등 궐내에 거주하는 이들의 예불 대상이었다. 궐내 도량법석도 폐지시킨다.

1402년 4월, 사찰의 토지를 군대에 예속시킨다. 이 소식을 들은 태상왕 이성계가 노발대발하며, 사찰의 토지를 되돌려주고 스님들을 억압하지 말 것이며, 부녀자들이 절에 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 태종은 불교 탄압을 일시적으로 접는다. 왕의 의중을 읽고 있는 대신들의 합창이 그치질 않는다. 1403년 6월, 사헌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다시 사찰의 토지를 몰수한다. 1404년 12월, 사간원의 건의로 부녀자들의 사찰 참배 금지, 1405년 8월, 폐사찰의 전답과 노비를 국가에 귀속, 11월에는 전국의 모든 사찰의 토지와 노비를 혁파한다. 유신시절 긴급조치 같은 포고령이 연이어 떨어진다. 불교의 존폐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

1406년 2월, 수백 명의 스님들이 대궐 앞에 마련된 신문고를 치며 탄압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다. 조계종 성민 스님을 위시한 스님들이 조정의 처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태종은 거부한다. 오히려 탄압의 강도를 높인다. 교단 내에 남겨둘 사찰, 스님, 노비, 전답의 수량을 규정하고 종단도 축소시킨다. 한양과 개경에는 오교양종에서 각 종단마다 사찰 1개로 한정하고, 지방의 목, 부에는 선종, 교종에서 각 1개 사찰, 군, 현에는 선종, 교종을 합하여 1개 사찰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한다.

이렇게 해서 조선 전역에 총 242개 사찰만 남는다. 관아에 의해 몰수된 노비는 총 8만 명, 몰수된 전토는 총 6만 결이 넘는다. 11개 종단을 7개 종단으로 통폐합한다. 조계종, 천태종, 화엄종, 자은종, 중도종, 총남종, 시흥종만 남는다. 고려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되던 승과(僧科)와 승계(僧階)도 폐지해버린다.

신진사대부의 정치 이념과 그들의 이해득실, 태종의 개인적 심사 특히 살부의식의 중심에 불교가 있었다. 개혁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탄압의 표적이 불교였다. 아버지 태조의 건원릉과 어머니 신의왕후의 제릉에는 마지못해 원찰을 세우게 했으나 자신의 능에는 생전에 엄명을 내렸다. '내 잠들 곳에는 더러운 중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고. 먼저 죽은 왕비 원경왕후 국상 때 재를 올리자, '대소 관원들로부터 노복에 이르기까지 거의 천여 명이 한데 어울려 떠들어대는구나. 부처에게 혼이 있다면 이런 일이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 라고 화를 냈다. 왕과 왕비 이하 사대부, 서인에 이르기까지 수륙재만 허용하고 다른 행사는 모두 철폐했다. 절에 참배하는 인원도 제한했다. '부처와 신선은 백성을 속이고 미혹케 한다. 모두 허황하고 망령되다. 천 년 후에 이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저희에게 달렸다' 라고 토를 달았지만 조선 왕릉 제사에 불교 의식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 봉쇄한 것이 태종이다. 고려 말 불교의 타락상에 대한 혐오와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한 덩어리가 되어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었다. 자비, 깨달음, 성불은 그에게 어지럽고 공허한 연기였다.

태종은 조선 역대 왕 중 최고의 야심가, 지략가, 정력가다. 권력의 세계에서 통할 리 없지만 그의 용맹과 지략과 정력이 여법하게 쓰였다면, 아쉽다. 산술적 수치가 큰 의미가 있을까 만은 태종은 부인이 10명이다. 랭킹 2위다. 1위는 9대 성종과 11대 중종이 각각 12명이다. 자녀수로는 태종이 랭킹 1위다. 12남 17녀 도합 29명이다. 자녀가 많다고 세간에 알려진 세종은 18남4녀, 22명이다.

선죽교. 태종(아방원)의 정치적 입지가 굳어진 역사의 현장.
방원은 수하 조영규를 시켜 이곳에서 정적 정몽주를 죽였다.

**태종 즉위와 동시에 인왕상 궐 밖으로 옮기고 도량법석 폐지**
**스님들의 탄압 중지 요청에도 전국사찰 · 종단수 대폭 축소**
**왕족과 사대부까지 수륙재만 허용 왕릉 불교 의식 원천 봉쇄**

헌릉의 제향.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 헌릉은…

헌릉은 태종과 원비 원경왕후 민씨의 쌍릉이다. 가까이 23대 순조와 비 순원왕후 김씨의 합장릉인 인릉이 있다. 합쳐서 헌인릉으로 불린다. 사적 제194호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 13-1 면적 1,193,071㎡(36,904평) 헌릉은 두 개의 능을 난간석으로 연결했다. 남한에 있는 왕릉 중 유일하게 문인석, 무인석, 석양, 석호, 석마가 다른 왕릉의 두 배인 각 2쌍씩 설치되어 있다. 곡장 안의 석호, 석양 석물이 총 16개다. 특히 능의 뒤편에는 석호 네 마리가 버티고 있다. 모두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대단한 경호다. 능침 옆에서 오른쪽을 내려다보면 경호는 더욱 심하다. 국가정보원이 거기 있다. 태종의 성품과 어울리는 기관이 외호하고 있다.

헌릉이 있는 대모산(大母山)은 육산(肉山)이다. 물이 많다. 원래 대고산(大姑山), 할미산으로 불리었는데 태종이 이곳으로 오자 대모산으로 바뀌었다.

능지로선 부적합하다. 태종은 재위 당시 명당을 찾아 1415년 지관 이양달의 추천으로 이곳을 수릉으로 택했다. 1420년 왕비 원경왕후가 승하하자 이곳에 안장하고 1422년 자신도 이곳에 안장됐다. 후에 태종 곁에 안장됐던 세종은 여주로(영릉), 문종은 동구릉으로 천장했다. 헌인릉 정자각을 조금 벗어나면 작은 늪지대다. 능의 곡장 안에까지 배수로를 파놓았다. 능침 개방 시간:월~금, 일요일 오전11시, 오후2시, 오후4시. 안내 및 설명 토요일 오후 2시, 3시.

"대한민국의 최초" 이동식 전통한옥!!
언제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에 이동해 드립니다

조립식 건축 | H-빔 제작 설치 | 이동식 주택및 팬션 | 전통한옥 철골조 공사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다라니 하우징만의 기술적인 만남!!!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사찰의 부속건물로서, 종무소, 요사채, 삼성각, 기타 등등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 본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83-4
TEL 031)594-7488 / FAX 031)594-2054 / 017-313-1474
E-mail : kyungki3333@naver.com
홈페이지 : www.drnhousing.co.kr

이동식 전통한옥(다실채,사랑채)건축 전문업체
다라니하우징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중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30%할인)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부대중 불자뿐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 일 정 | 지 도 | 인 원 | 대 상 |
|---|---|---|---|
| 2007년 4월21-4월27일 (6박7일) | 우 소다나 사야도 | 20명 선착순 | 일반인 |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6박 7일 중 일부기간 참여가능)
• 시 작 날 – 4월 21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4월 27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복장, 쇼올,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